

금융위기 여파 ‘보호무역주의’ 쓰나미 몰려온다



1 전세계 재정적자 수렁에 빠지나

전 세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가능한 재정을 모두 동원해 급한 불은 꺼지지만, 이는 곧바로 각국의 재정적자 과다로 이어지면서 부메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난을 메우기 위한 국제 발행이 급증하면서 국제 수익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에 쏟아진

(CTBT)의 의회 비준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약속'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핵 비확산·핵 군축 드라이브가 실제 '업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지는 핵 관련 일정과 과제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구상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과 이란이다. 두 나라의 핵은 동북아와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뿐 아니라 제2의 북한·이란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은 두 곳으로 집중될 것이다.

3 세계 공조 기후변화 막을까

2013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난 2년간 협상의 종착점으로 기대됐던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지난해 12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렸지만 큰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제 세계의 이목은 올해 말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제16차 총회로 쏠리고 있다.

온난화로 인한 인류 종말의 시계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올해 말 다시 한번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경우 인류의 종말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막기 위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2010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합의를 도출해 2013년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만은 않다는 평가다.

문제는 각국의 특질만 따지는 국가 이기주의, 또는 정치인들의 국내 정치·경제적 이해 때문에 "지구라는 큰 배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 구멍을 누가 메울 것인가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려는 공유 비전을 현실화시키려면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국의 약속이 필요하다.

4 끝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

엄청난 물량의 국제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시중금리 또한 끌어올려 기업투자와 가계 소비 위축을 초래해 세계경제를 다시금 수렁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 전조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말 두바이 정부의 자회사 두바이 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데 이어 12월 들어서는 그리스와 스페인이 국가부채 문제로 국제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두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은 곧바로 유로존의 다른 국가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휘발성이 높다.

당장 국가부채 규모가 큰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포르투갈도 위험권에 들어섰다. 여기에 발틱3국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물론 러시아와 과거 동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 문제도 2010년 지구촌 경제의 화약고 가 될 소지가 있다. 이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속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국이 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고,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완만한 추세이긴 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흥개발국과 아시아국가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더불들의 위기라고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 놓고 있다.

2010년은 8년 넘게 끌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둔군 3만명 증파를 발표하면서 운과를 드러낸 2011년 출구전략 가동을 위한 전환 반전과 치안병력 육성 등에 엄청난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1천700여 달러라는 엄청난 전비를 쏟아 붓고 1천 명에 육박하는 전사자를 냈지만 전환은 약화일로를 걸어왔다.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알 카에다 최고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행방이 묘연한 채 전장을 파시하고 있고, 그를 보호해온 탈레반은 영향권을 점차 확대하며 '제2의 베트남'을 호언장담해 왔다.

반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전쟁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전쟁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대규모 주둔군 증파를 통한 전환 반전과 2011년 출구전략 가동이라는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은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과 아프간에 이 두 가지 중대 과제 이행에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시기다.

5 무섭게 크는 중국 'G2' 공고화

2010년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이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까지 불리며 국제사회를 주도할 만큼 높아진 위상을 실감한 한해였다면 새해는 세계 질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중국이 진정한 의미의 G2로서 영향력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중국은 2010년에는 상하이엑스포를 통해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상하이엑스포는 오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91개국과 48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다.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은 중국과 해외를 포함해 모두 7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관광 등 경제유발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급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탄탄한 경제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경제, 특히 수출시장인 선진국의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8%만 목표를 사실상 달성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새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9.0~11.9%, 지난해보다 더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금융위기로 달러화의 위상이 추락한 기회를 활용,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우기 위한 각종 조치를 앞 다퉈서 취해 왔으며 이 같은 행보는 새해에 더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연합뉴스



최고의 기술로 고객의 성공을 앞당기는

솔루션파트너 - LG화학

고객의 미래를 넓보다 먼저 준비하고
고객의 고민을 넓보다 빨리 해결하며
고객의 필요를 넓보다 자주 반영하겠습니다